

## 부래미(富來美)마을 사람들의 도전



고 경 필  
부래미마을 마당쇠

### 1. 들어가면서

29년전 어느 봄 날 다홍치마를 입은 새색시가 한 남자를 따라 부래미마을로 시집을 왔다. 호기심과 기대를 안고 찾은 시댁마을은 여느 농촌과 다름없이 아늑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지만, 경기도 이천에서도 제일 낙후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환경도 열악하고 생활형편도 어려웠다. 세월이 흘러 새색시는 중년이즘마가 되었지만, 부래미마을은 주민소득 감소와 이농현상,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500여명이던 주민은 70여명으로 줄어 들어드는 등 마을형편은 점점 어려워지기만 하였다.

4년 전 썸이었을까? 개방화의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앞으로 5년 후 썸이면 벼농사를 지어도 정부에서 수매를 하지 않고, 농사를 지어도 더 이상 팔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우리 농민들의 가슴을 짓눌러오기 시작했다. 앞으로 지금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우리 농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걱정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고조되는 농촌의 위기감이 부래미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합쳐 뭔가 새로운 도전의 길로 나서게 하였다. 마을사람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농사는 계속하면서 도시민들에게 농사체험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지은 농산물을 구입할 소비자를 찾아 안정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체험마을을 운영해 보기로 하였다.

2002년부터 농림부로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을 받고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무조건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해 온 결과로 지금은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2003년 3천명이던 농촌관광객이 2005년에는 18천명으로 증가하였고, 농촌관광으로 인한 소득은 2003년 가구당 100만원 수준이던 것이 2005년에는 가구당 800만원 정도로 증가하였다. 무엇보다도 마을주민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성과가 나타나기 까지 지난 3~4년간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면 “체험마을 가꾸기”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면 우리는 아예 시작을 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본 고에서는 부래미마을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경험과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2. 부래미 마을 현황

부래미마을은 경기도 이천시 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농촌마을이다. 마을인구는 예전에는 500여명에 까지 이르렀으나,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이 가속화되어 최근에는 70명에 불과하며, 총 가구수 28호중 22호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조그만 농촌마을이다. 2003년 말 현재 농경지 면적은 60.3 ha이며 이중 논이 29 ha, 밭이 26 ha, 그



그림 2 부래미마을 위치도



그림 3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도로변 잡초제거와 꽃심기 하는 모습

리고 과수원이 5.3 ha로서 논농사와 밭농사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림 1은 부래미마을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주요 재배 작목으로는 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밭작물로는 채소, 고추, 강낭콩, 고구마, 인삼 등을 재배한다. 과수로는 복숭아와 배 등이 생산되며, 축산이나 화훼는 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소득은 주로 농업생산에 의존하고 있으나, 시설채소나 축산 등 고소득 작목을 경영하는 농가가 없어,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농가의 소득이나 지역 경제 수준은 크게 낙후된 실정이었다.

이러한 부래미마을은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산업화·도시화에서 뒤져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경관과 우리 농촌의 전통과 문화가 잘 보전되어 있고, 순박하고 인정 넘치는 우리 농촌의 미풍양속이 잘 간직되어 있는 마을이다. 또한 토질이 비옥하고 자연재해가 거의 없어 농사짓기에는 더 없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복숭아, 배, 포도 등 농산물의 품질은 전국 최고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하다. 이러한 점은 최근 농촌 대책의 하나로 크게 부상하고 있는 그린투어리즘을 시도할 수 있는 우수한 자원과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마을가꾸기

부래미마을 주민들이 마을 가꾸기 사업과 함께 농촌체험 마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2년 10월경이다.

농가소득이 뒷걸음치고 있는 상황에서 거센 개방화의 파고로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여 이대로 가다가는 농업도 농촌도 농민도 다 죽을 수밖에 없으리라는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이 뜻을 모아 마을가꾸기 사업을 시작할 무렵, 부래미마을 출향인들이 함께 모여 ‘고향 가꾸기’를 해 보자는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다. 주민들과 출향인들이 함께 마을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면서, 도시에서 자라났고, 결혼 후에도 남편 직장이 있는 도시에서 주로 생활을 해왔기에 농업은 나에게서는 낯설고 어렵고 서툴기만 하였지만,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고자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 나는 이 때부터 마을사람들이 지어준 “마당쇠”라는 이름으로 홍보, 마케팅, 홈페이지관리 등을 맡아오고 있다.

사업 초기 우리는 먼저 전문가를 모시고 농촌관광에 관한 국내 사례나 일본 사례 등을 공부하면서 녹색농촌체험 마을조성사업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농민들로서는 농촌의 자연환경과 전통 문화 등을 상품화하고 농특산물의 직거래를 확대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고, 도시인들 역시 쾌적한 자연 환경에서 체험과 교육, 휴양 등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여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마을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마을 주변에 대한 대청소나 꽃심기와 같은 쉬운 일부터 실행하면서 점차로 사업을 확대해 나갔다. 주민

들의 적극적인 자조 노력과 마을 출향 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부래미마을은 2003년 농림부로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을 받게 되었다. 우리의 첫 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얻게 되자 마을사람들은 크게 고무되었고,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 그림 2는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도로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꽃 심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출향인사를 초청하는 Home Coming Day를 마련하여 잔치를 벌렸다. 출향인사들은 부래미사랑모임을 결성하였고, 이 모임의 회원은 490여명에 이른다. 마을주민들은 마을생활환경개선과 경관조성에 힘을 모았다. 마을에 있는 조그만 저수지 주변을 정화하고 수생식물 서식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봉어와 논우렁이 양식을 하였다. 그린스쿨, 식당, 소공원, 운동장 등이 있는 체험관을 조성하여 농촌체험 활성화를 기하였다. 마을의 홈페이지(www.buraemi.com)도 구축하였다.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마을 경쟁력 확보, 부래미마을만의 특화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富來美」를 브랜드화하여 지역 공동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다. 그리고 표 1과 같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평생 농사만 짓던 우리에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다. 감당하기에는 어렵고 난감한 일들이 너무도 많았다. 더구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어려움의 연속이었고, 별 것 아닌 것 같은 일

들도 일이 꼬이고 어렵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2002년 말 처음 녹색체험마을로 지정을 받고 2003년도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일들이 생소한데다 어느 누구도 확신을 못 가졌기에 어떤 일을 결정지으려면 마을 사람들 모두의 의견을 묻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항상 발생하였다. 아마 내 기억으로는 그 해에 우리가 개최한 마을 회의가 100번은 되는 것 같다. 매주 한 두 번 이상 모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의견을 모으고 일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마을 리더와 주민간에, 혹은 주민 상호간에 의견 조정이 되지 않아 갈등을 빚고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자주 발생하곤 하였다.

그 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외부기관과의 관계였다. 행정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였기에 시청에 낸 서류는 한 번에 통과된 적이 없었다.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왜 그렇게 까다로운지 시청을 밥 먹듯이 들락거려야 했고, 보통 서너 번은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했다. 행사를 개최하려면 기획을 해야 한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 본적도 없었으니 오죽했겠는가? 어쩌다 TV 프로그램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기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농사일손을 다 놓고 매달려 뒷바라지를 해야 했다. 관련 기관이나 다른 시·군에서 방문 또는 견학이라도 온다면 마을 지도자는 준비하느라 밤잠을 못 잤다. 아직은 아무 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주민들도 숙달되지 않은 상태라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난관의 연속이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모두들 힘을 모아 열심히 노력했다. “배꽃 보러 오세요”, “포도 따기 체험캠프”, “농촌풍경 그리기 부래미 미술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며 마을도 알리고, 도시민들도 유치했다.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는 차츰 학습이 되고, 숙달이 되어, 지금은 농사를 지어가면서 어느 때라도 체험가족들을 맞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마을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 봉사에 힘입어 주민들의 뜻이 모이고 사업의 기초가 다져지고 마을의 면모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었다. 지난 3년간 우리 손으로 체험관을 건립하고, 입간판을 세우고, 나무와 꽃을 심고, 등산로를 정비하고, 마을안내 책자를 만들어 비치하고,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홈페이지를 오픈 하고, 체험객을 맞으면서 겪은 어려움이 오히려 부래미마을 사람들을 일깨우고 역물게 하여

표 1 부래미마을의 주요 체험프로그램

구 분	내 용
일반 프로그램	농사체험 전통문화체험 놀이체험 자연생태학습 먹거리체험
이벤트 프로그램	Home-Coming Day(정월 보름경, 2월) 부래미 배꽃축제(4. 20일 경) 포도체험캠프(8~9월) 부래미 미술대회 (초·중·고학생 대상, 10월하순)
가을축제	국화전시회, 사진컨테스트, 거북놀이, 미술대회 등

지금의 부래미마을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지도 모르겠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견학을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체험 가족들이 늘어나면서 농가의 수입도 늘어나게 되자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가 바뀌고 사업에 대한 의욕도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신문이나 방송 등 매스컴에서 마을이 자주 보도되고 마을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그 동안의 노력이 인정을 받게 되자 이제는 주민들도 부래미마을 주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점에 대하여는 그 동안 주위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정부, 컨설팅, 전문가 분들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 4. 마을의 운영

##### 가. 마을운영 조직체계

마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마을을 대표하고 마을업무를 총괄하는 이장, 기획·운영,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총무, 사무행정과 체험운영을 담당하는 사무장, 식당관리와 공동식사를 담당하는 부녀회장, 섭외·지도, 고객관리를 담당하는 우당, 홍보·마케팅과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마당쇠를 두는 등 조직체계를 갖추어 운영중에 있다. 그림 3은 조직체계의 모식도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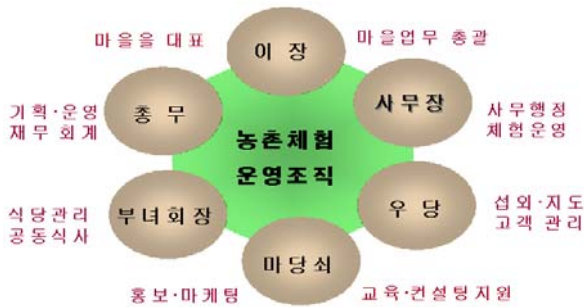


그림 4 부래미마을 운영 조직체계

##### 나. 다 같이 잘사는 마을 만들기 위한 노력

부래미마을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난 3년간 여러 가지 큰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래미마을은 전국의 여러 마을 지도자들이 견학을 오는 곳으로 변화되었지만, 마을을 이끌어 가고 있는 지도자들의 고민은 더 늘어 가기만 한다. 지금은 사업초기이고 정부의 지원도 있고 해서 도시

민들이 농촌을 찾아오고 있지만, 언제까지 도시민들이 호기심을 보이고 찾아 줄지가 걱정이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소득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민간의 위화감이나 갈등에 대한 우려 역시 여간 큰 걱정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다 같이 잘사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의 지역주민 제고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농가들의 역량을 감안하여 민박이 가능한 농가는 우선 민박을 담당하게 하고, 그 밖의 농가는 농사 체험을 하되, 특정 농가나 특정 작목에 체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전 영농협의를 통하여 농가와 면적을 조절하고 있다. 마을 식당은 부녀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되 부녀들이 돌아가며 식당운영에 참여토록 하고 해당 인건비를 지급함으로써, 민박이나 농사체험에 참여할 수 없는 농가에게도 소득의 기회를 넓혀나가고 있다. 또한 우체국 및 택배회사와 단체계약을 통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에 따른 택배비를 약 50%수준으로 절감하고 있다.

부녀자들과 할머니가 중심이된 “슬로푸드 사업단”, “할머니 사업단”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이 주인 의식과 책임감을 갖도록 함과 동시에 재미를 느끼도록 하고 있다. 교육은 가고 싶은데, 고추모 하우스 관리를 걱정하는 부녀들에게 할머니 사업단에서 걱정말고 다녀오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걱정 말고 다녀와! 우리가 책임지고 덮어 줄게”이 한마디는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함께 화이팅을 하자는 강력한 메시지로 느껴지기도 한다.

다같이 잘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투명한 회계관리와 소득의 공평한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다. 슬로푸드 사업단, 할머니 사업단 발족

2005년에는 마을부녀회 중심으로 구성된 “슬로푸드 (slow food) 사업단”과 할머니들이 운영하는 “할머니 사업단”을 발족시켰다. 사업단은 반찬류와 김치 등 마을 식당에서 필요한 음식을 만들어 마을 공동식당에 팔고, 마을을 방문한 도시 가족들에게도 판매하고 있다. 사업단을 조직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 참여도도 높이고, 부래미마을 음식



맛의 표준화가 가능해지며, 체험사업의 보완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소득의 공평한 재분배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는 인접마을의 부녀들도 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사업단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며, 부래미마을 고유의 특화음식을 연구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런 작은 공동체들이 움직이게 되면서 재미있게 일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소속이 생겨 주인의식과 마을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라.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능력 제고**

부래미마을을 찾아오는 체험가족들이 늘어나면서 문의전화도 증가하고, 견학·연구를 위하여 오시는 분들도 많아져서 지도자들은 정신없이 바빠졌다. 그들의 눈·발에는 풀이 썩어가고 재 때 손길이가 지 않아 농사는 엉망이 되어갔다. 많은 체험가족들이 몰려오는 주말에는 마을사람들 모두가 동원되어도 일손이 모자란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컴퓨터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몇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의 집중과 공백을 없애도록 하였다. 예약 접수자를 5명으로 분산하여 각자 예약을 받되, 마을 사람들과의 정보 공유를 위하여 이 내용을 마을 홈페이지에 마련된 내부 통신망인 “일정관리”란에 게시하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컴퓨터를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각자 본인에게 사전에 부여된 일을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하고, 다시 눈·밭으로 나가 자기 일을 하는 식이다.



그림 5 부래미마을 홈페이지( www.buraemi.com ) 주민들만 공유하는 일정관리란

소비자들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을 하도록 유도하고 혹시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비고란에 기록토록 하여 농사일을 마친 후 밤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 하고 리턴 메일을 보내준다. 그림 4는 부래미마을 홈페이지의 주민들만 공유하는 사이트의 일정관리란 모습이다.

마을 주민들 모두가 컴퓨터를 즐겨 사용할 줄 알게 되면서 얻게 된 가장 큰 변화와 발전은 무엇보다도 소득 분배 사무의 편리성과 투명성이 아닌가 생각된다. 체험마을 운영으로 들어온 소득과 지출, 농가별 분배까지 일목요연하게 엑셀로 정리되어 있고, 각자의 수입금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속·정확하게 개인별 통장에 입금되고 있다.

**마. 공부모임**

부래미마을은 28가구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라서 다양한 농사체험거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마을과 함께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포도, 딸기, 토마토, 사과 등 일부 작목의 경우 우리 마을에는 이 같은 품목은 생산하는 농가가 없기에, 이들 품목의 수확체험을 할 때에는 이웃 마을의 농가들이 함께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부래미마을만의 사업이었던 것이 이제는 면내의 여러 이웃마을들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사업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농촌관광에 대한 이웃 마을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주민들간의 의사소통이나 정보 교류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부래미마을에서 시작된 도·농 교류사업이 성과를 거두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여 지역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의견이 주민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무기력하기만 하던 지금까지의 사고와 행태에서 벗어나 변화하고 혁신하자는 공감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면내의 선도 농업인들이 모여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 개방화·정보화 사회에 대응 해 나가자! 우리 지역은 우리 손으로 보다 더 아름답고, 잘 사는 마을로 가꾸어 나가자!”는 운동을 펴고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공부모임”을 만들어 매월 한차례 마지막주 목요일에 정기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현안문제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모여 공동 관심사항을 발표하고 토론을 벌이고 있으며,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별강좌를 개설하기도



그림 6 마을주민의 공부모임 모습

한다. 그림 5는 마을주민들이 공부모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부모임에 참여하는 주민은 처음에는 16명이었으나, 지금은 6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농업인들 스스로의 역량 개발과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공부모임은 앞으로 주민들 간의 지식과 정보의 교류를 촉진하는 지역지식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주민 주도의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바. 마을주민 협약

처음 부래미마을 사람들이 “마을 가꾸기”를 시작할 때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농외소득을 높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였지만 차츰 체험마을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소득 증대만이 아니라, 더 크고 중요한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래미마을을 찾아와서 농촌을 잠깐만이라도 느껴 본 많은 도시민들은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고, 지키고 있는 자연환경에 대하여 대단히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농촌의 역할에 대해서 감사해 하고 지지를 보내 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고유한 전통을 지키고, 도·농 교류를 통해 후손들에게 농촌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도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국토를 아름답게 가꾸고 유지,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하기까지 한다.

이와 같은 역할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부래미마을주민협약”을 만들었다. 마을 협약에는 여러

가지 우리의 공동사업에 관한 내용들이 있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농촌마을 환경보전과 경관조성에 관한 우리의 합의는 미래의 우리나라 농촌 모습을 생각한 대단히 소중한 합의라고 생각한다.

### 5. 그동안의 성과

지난 3년간 부래미마을 사람들의 노력으로 2005년도에는 농촌관광소득이 농가소득의 40%에 근접하는 결실을 가져왔다.

마을의 연간 방문객 수는 2003년 3천명에서 2004년에는 12,000명, 2005년에는 18,000명으로 증가하였고, 농촌관광체험에 의한 가구당 소득은 2003년 100만이던 것이 2004년에는 300만원, 2005년에는 800만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6은 부래미마을 방문객 및 가구당 체험소득 증가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5년에는 농림부 주관의 “마을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농업인, 공무원, 농촌관광 전문가들이 현장 견학지로 부래미마을을 찾아오게 되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지 농촌마을이 소득사업에 성공한 사례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부래미마을 사람들이 뜻을 모아 함께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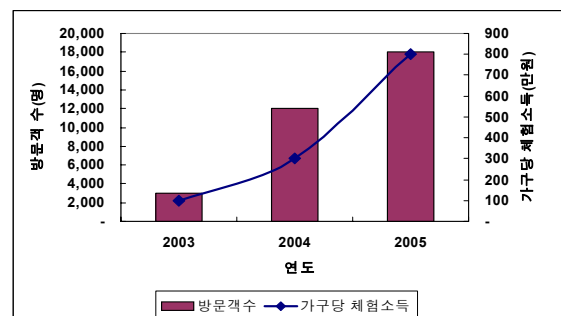


그림 7 부래미마을 연도별 방문객 및 가구당 체험소득 증가 추이

### 6. 맺음말

우리의 염원과 노력이 반드시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물론 작게 보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 이미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지역 주민들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보다 더 열심히 공

부하고 노력하여, 각자 경쟁력을 갖추고 함께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면, 풍요롭고(富) 아름다운(美) 마을, 부래미(富來美)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라고 확신한다.